



\* 지난주 강단제목 :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복음, 완전사랑 (잠 25:21-22, 고전 13:13)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   |
|--------------|---|
| ★ 임례송        | 오르간   |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 응답송        | 찬양대   |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 경배의 찬양     | 6장. 목소리 높여서 / 다같이                             |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설교자   |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 성서교독       | 15. 시편 27편 / 인도자와 회중                          |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6)

- |             |   |
|-------------|---|
| 찬송          |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다같이   |
| 중보의 기도      | (1부) 박영인 장로 (2부) 유승범 장로   |
| 성경봉독        | 요나 1:1-3(구약 1287쪽), 누가복음 11:29-32(신약 113쪽) / 인도자  |
| 찬양          | (1부) 두려워하지 말라 / 시온찬양대 (영상)<br>(2부) 일을 행하는 여호와 / 시온찬양대 (현장)  |
| 말씀의 선포      | <b>불순종한 요나와 참복음과 참전도, 참선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b> -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 / 설교자   |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 교회소식        | 설교자   |
| ★ 결단의 찬송    | 언약의 사람아(2절) / 다같이   |
|             | 언약의 사람아 애굽과 광야를 맘껏 두려라 요단 앞에서 감사 두려라<br>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이 너의 것이라 하나님 기념비 보게 되리라<br>여리고 앞에서 그들을 보리라 주인 떠난 그들을 보게 되리라<br>그날은 정녕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br>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망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 봉헌기도 · 축도 | 정윤돈 목사  |

다음 주 기도 : (1부) 김순호 장로 (2부) 이명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부사예배

|       |          |                                  |
|-------|----------|----------------------------------|
| 유치부   | 오전 11:00 |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
| 태영아부  | 오후 2:00  |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
| 어린이부  | 오후 2:00  |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
| 중고등부  | 오후 2:00  |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 대학청년부 | 오후 3:30  |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        |                         |
|--------|-------------------------|
| 기도     | (오전) 장길순 권사 (오후) 고진순 권사 |
| 인도, 설교 |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심한결 목사 |

다음 주 기도 : (오전) 정은숙 집사 (오후) 김승훈 집사

##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      |        |
|------|--------|
| 지역보고 | 5지역    |
| 설교   | 박범서 목사 |

다음 주 지역보고 : 6지역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            |            |            |
|------------|------------|------------|
| (월) 심한결 목사 | (화) 이현규 목사 | (수) 이현규 목사 |
| (목) 박범서 목사 | (금) 박범서 목사 | (토) 심한결 목사 |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교회소식

1. 총회 목사교사가 6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고시위원 10여 명, 고시생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별 준비 및 장소사용에 관해 많은 기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북요일절 입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오후예배, 금요일아침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문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턴부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6)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해서 줌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7)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심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 기관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임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돈 담임목사 : 6.8 총회 목사교사, 6.9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 - 덕평 RUTC, 6.10-11 아르메니아 선교팀 예비캠프 - 보은임마누엘교회)
2. 교우 해회 및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14면에 있습니다.)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의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요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턴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채특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라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턴트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11) 2드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팀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피아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8. 교육기관 : "스포츠클럽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9.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니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교회소식

### ■ 후원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화(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중직자대학원 강의를 오늘 오후 6시에 3층 제2랩넌트실에서 있습니다.
3. 237세기족현장사역자훈련이 6월 9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미주대학전도집회가 '세계 살릴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행18:1-4)'를 주제로, 6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미국 시카고성국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5. 중독예방사명자대회가 '전도 이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아야(마28:16-20)'를 주제로 6월 26일(금)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6. 제29차 세계랩넌트대회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창41:38)'를 주제로 열립니다.
  - 1) 세계랩넌트대회는 8월 4일(화)부터 8월 7일(금)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립니다.
    - 1차 등록기간은 5월 23일(토)부터 6월 22일(월)까지, 1차 입금마감은 6월 25일(목)까지이며, 2차 등록기간은 6월 30일(화)부터 7월 14일(화)까지, 2차 입금마감은 7월 15일(수)까지입니다.
    - ① 지정된 기간 내 등록과 입금 모두 완료시 최종확정이 됩니다.
    - ② 숙박신청 여부에 따라 등록금액이 상이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20만원 우선 입금시 좌석 배정)
    - ③ 온라인 등록기간에 따라 등록현금이 다르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등록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대상)                     |                  | 내용                             | 등록현금          |       |       |
|----------------------------|------------------|--------------------------------|---------------|-------|-------|
|                            |                  |                                | 1차등록          | 2차등록  | 당일등록  |
| A. 랩넌트<br>(2013년생~2001년생)  |                  | 숙소, 식사, 차량 신청                  | 44만 원         | 45만 원 | 46만 원 |
|                            |                  | 숙소, 차량 미신청<br>* 식사 필수제공(팀별 진행) | 31만 원         | 32만 원 | 33만 원 |
| B. 일반<br>(2000년생 이상)       |                  | 숙소, 식사, 차량 제공없음                | 24만 원         | 25만 원 | 26만 원 |
|                            |                  | * 식사 신청시<br>추가 7만 원            | 31만 원         | 32만 원 | 33만 원 |
| C<br>(동반자녀)<br>보호자동반<br>필수 | 2014년~<br>2022년생 | 식사 제공                          | 14만 원         |       |       |
|                            | 2023년<br>이후 출생   | 해외 랩넌트                         | 27만 원 (숙소+식사) |       |       |
|                            |                  | 식사 및 좌석 제공 없음                  | 등록현금 없음       |       |       |
|                            |                  | 장애인(1,2,3급 중증) 복자카드 or 등록증     | 등록현금 50% 할인   |       |       |

## 6월 행사 및 일정

| 구분  |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
|-----|--|
| 0주차 | 제44회 전국 교역자 부부수양회(1~3, 평창), 랩넌트사역자 및 교사강습회(2~3, 덕평 RUTC) |
| 1주차 | 총회목사고시(8), 237세기족현장사역자훈련(9)                              |
| 2주차 | 미주대학전도집회(16~17, 시카고)                                     |
| 3주차 | 목회사모원(24~25, 여름학기), 중독예방사명자대회(26), 랩넌트데이(27)             |
| 4주차 | 랩넌트부서연합예배(28) / 237화요제자훈련(30, 덕평 RUTC)                   |

## 6월 봉사위원 안내

| 구분   | 봉사위원   |
|------|--|
| 현금위원 | (위원장) 신승훈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는 이영경 |
| 성찬위원 | (5층)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6층) 유경형 주재진      |
| 안내위원 | (위원장) 라종화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
| 주차안내 | 인수집사 전원  |

## 기도제목

###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 현당을 위한 헌신

|   |
|---|
| <b>70인 요원 (24명)</b>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
|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재용-전정아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
| <b>300인 용사 (132명)</b>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
|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지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홍근 김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운 이남현 오영숙 정향만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서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

##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        |  |
|--------|--|
| 주일헌금   |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결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라종화 주재진 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초 김명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장공이 김재귀 장소녀 김나경 임영순 김일호 김영순 최재경 박근아 호민수 이세호 김춘례 이순근 이순덕 박희영 안현희 신혜선 김순자 이영순 조성국-김갑례 정향란 김주영 김희권 나경철-신현식 임소순 정은숙 김경애 김정연 박숙자 현영화 주철우-정선희 문혜영 정민호-이서은 박난순 윤순옥 심성하 여수아 정예승 홍명숙 안나근 오유라 이가애 이진형-최기은 김이리 박찬열 김태운 임혜미 이아연 안도근 임혜연 최일숙 정수환 조현지 황혜주 양은숙 여 명 이민형 임경미 유승환-최이현 최영국-김윤지 김소라 최송화 김명철 장유미 이연균 김승훈-김혜인 김영희 이민수-김숙희 유영석 한경숙 전주울 조부영 도정호 김창균-임예진 이효숙 안선희 채송아 방주는 정예진 전 진 배준서 안예근 양영아 무명15 |
| 십 일 조  | 정윤돈 최신영 김희권 양경심 신혜선 주철우-정선희 이명재-구윤진 유충환-강공이 정민호-이서은 조성국-김갑례 안선희 배준서 박찬열 고진순 유영석 조부영 박동영 박지영 이효숙 김지후-이현주 유경형-라종화 최보인 오국환 이 명 송영희 양경아  |
| 감사헌금   | 정윤돈 최신영 박학규 유경선 양경심 정민호-이서은 임혜미 방주는 이아연 김태울 조연희 조재형 최신혜 안경호 박영인 이은숙 유경형-라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이효숙 최송화 강남노희 무명  |
| 심방헌금   | 지복순-임상식 임민재-지성순  |
| 차량헌금   | 박동영-최진희  |
| 일천번제   | 최신영  |
| 선교헌금   | 최신영 주철우-정선희 정민호-이서은 강공이 안현희 임영순 양경심 조성국-김갑례 김이리 방주는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안도근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라종화 양경아  |
| 히로사마선교 | 호민수 이 명  |
| 차유센터   |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방주는 (*2026년도 총계 319,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
| 헌당헌금   |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주철우-정선희 정민호-이서은 강공이 양경심 임영순 조성국-김갑례 방주는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고진순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양경아  |
| 장학헌금   | 최신영 김원일-전인숙 주철우-정선희 정민호-이서은 양경심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유경형-라종화 방주는 양경아  |
| 어학연수   | 정수환  |
| RUTC헌금 | 최신영 주철우-정선희 조성국-김갑례 방주는 정수환 고진순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양경아  |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5. 27. ~ 2026. 6. 2.)

|                        |             |                     |            |
|------------------------|-------------|---------------------|------------|
|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 71,427,000원 |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 440,000원   |
|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 6,113,000원  |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 1,427,000원 |

|  |                                    |
|--|------------------------------------|
|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1,000,000엔 (한화 4,284,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                                    |
|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
|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
|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 참사랑RUTC                            |

##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 지역/<br>전도인  | 구역<br>(담당장로)  | 구역장 | 권찰  | 구 역 원 (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  |
|-------------|---------------|-----|-----|--|
| 1지역/<br>최진희 | ①오금1<br>(오국환) | 박인자 | 최진희 | 최정웅 전정아 <b>박동영 최진희</b>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br>배고는 박접순 이신순 <u>최일숙</u> 조영희 장혁준 <b>최봉식</b> 최신주 최해나  |
|             | ②오금2<br>(박동영) | 김주영 | 주은경 |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b>유승범</b><br>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
| 2지역/<br>이미자 | ③방이1<br>(이수용) | 양경아 | 유경선 | <b>이수용 이미자</b> 이재은 <b>여준석</b>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br>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br>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
|             | ④방이2<br>(최철규) | 홍미경 | 이미자 |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b>백은지B</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잠수A<br>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
|             | ⑤천호<br>(유경형)  | 리종화 | 홍경아 | <b>유경형 리종화</b>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br>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
| 3지역/<br>김금남 | ⑥잠실<br>(이은숙)  | 조부영 | 김소라 |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b>조영주</b> 박근혜<br>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br><b>전민식</b>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
|             | ⑦송파<br>(임근일)  | 양은숙 | 박승숙 | <b>김금남</b> 김수형B 김수민 <b>임근일</b>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
|             | ⑧하남<br>(김경희)  | 김영희 | 한영화 |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b>김경희A</b>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b>최철규</b><br><b>한영화</b>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br>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
| 서울<br>경기    | ②박범서 목사       |     |     |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br>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톱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br>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기원   |
|             | ⑤심한결 목사       |     |     |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b>박현주</b>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br>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교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br>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br>김도원 <b>도상철</b> <b>채희은</b>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는 <b>김석재</b> 김정길<br>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
|             | ⑥이현규 목사       |     |     |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br>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br>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br>최민기 천 용 이유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b>이상훈</b>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br>박은선 <b>김준일</b>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br><b>최영철</b>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혜수 |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 지역/<br>전도인  | 구역<br>(담당장로)       | 구역장 | 권찰  | 구 역 원 (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  |
|-------------|--------------------|-----|-----|--|
| 4지역/<br>김계자 | ㉑오금3<br>(정세완)      | 박희영 | 임경미 |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
|             | ㉒오금4<br>(주재진)      | 신혜선 | 권혜경 |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
|             | ㉓오금5<br>(최명홍)      | 이계옥 | 최송화 |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
| 5지역/<br>양경심 | ㉔올림픽1<br>(김현)      | 장길순 | 이영순 |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
|             | ㉕올림픽2<br>(여동훈)     | 정년영 | 김정연 |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
|             | ㉖올림픽3<br>(양경심)     | 이현주 | 양경심 | 박엽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
| 6지역/<br>김순호 | ㉗강남<br>(김순호)       | 손혜옥 | 임소순 |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만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
|             | ㉘구리<br>(유승범)       | 이정미 | 임영순 |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
| 7지역/<br>이명  | ㉙오금6<br>(배승찬)      | 이명  | 임예진 |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혜원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윤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
|             | ㉚오금7<br>(이명)       | 최혜숙 | 홍명숙 |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
|             | ㉛오금8<br>(여준석)      | 고진순 | 이선아 |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
| 8지역/<br>최신혜 | ㉜문장<br>장지<br>(라종화) | 최신혜 | 이가에 |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장남 유정빈                  |
|             | ㉝가락<br>(정영규)       | 백소정 | 정선희 |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이균재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
| 9지역/<br>박영인 | ㉞거여<br>마천<br>(최진희) | 박영인 | 이순덕 |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을  |
|             | ㉟강동<br>(신승훈)       | 정향란 | 김숙희 | 심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김숙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운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

##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복음, 완전사랑

###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잠언 25:21-22, 고린도전서 13:13

#### 들어가는 말

최근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선교사님들을 뵈고 포럼을 나누며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번 일정 홍콩집회 이전부터 하나같이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달라고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했다. 진정한 성령인도는 완벽하게 받는 것인데, 내 시간, 스케줄, 부모, 자녀, 문제, 교회, 그리고 선교현장의 만남 등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밀히 인도받는데는 모든 것을 맡기고 세밀하게 인도받을 때, 그 여정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은혜롭다. 식당 하나를 찾는 것조차 성령의 감동을 따라 램프들을 통해 인도받는 체험을 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김선원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은 이미 참사랑교회에서 진행한 강단노예 직도전캠프메시지를 듣고 인도를 받고 계셨음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고 감사했다. 구마모토의 김선원 선교사님 부부의 사연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불신자 가정출신으로 박종혁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교 배경의 엄격한 집안 분위기와 남편 뒤 김선원 선교사님의 선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기분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혼식 당일 부산으로 도망쳐버렸다고 한다. 일주일 뒤 돌아왔을 때, 남편과 시대 식구들은 정직하고 꾸짖는 대신 그녀를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었다. 늘 불법적이고 모범적으로만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그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어설픈게 사모가 되었다면 평생 고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녀의 율법적 틀을 완전히 박살내고 참된 복음적인 사모로 세우시는 완벽한 섭리를 이루신 것이다. 이번 선교현장에 가면서 준비한 메시지 제목이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복음, 완전사랑'이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한다. 할머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성도 간의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보인다. '어떻게 결혼식 당일엔 신부가 도망쳐 사라질 수 있는가'라며 꾸짖고 욕하며 손가락질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신앙에 빠져 불평불만하고 남을 탓하거나 내 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교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모습을 통해 오늘 성도들이 이 강단메시지가 현실에서 미리 세워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다. 또한 히로시마의 시의원인 미즈노 의원의 귀담도 보았다. 그는 팔로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4년 만에 1등으로 재선될 만큼 지역의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었다. 메일 이걸, 저녁으로 자전기로 출퇴근하며 겸손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를 보며, 장차 시장을 넘어 국회의원으로 동경에 진출할 훌륭한 서민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창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찬양축제 할 것을 소통하였다. 그래서 이후 함께 할 것을 기약하게 되었다. 히로시마에서 그 의원의 배려를 통한다면 앞으로 히로시마 현장에서 램프들과 함께 K-pop 찬양축제를 하며 복음을 전할 문화시역의 길도 순조롭게 열리게 될 것 같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끝까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을 깨달았다. 내가 역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중심만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사도 이와 같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신앙에 빠지면, 스스로 이렇게 치르게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 것은 모두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부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절수는 과연 몇 절이었는가. 한국 양공을 세계 최고수준이라서 적당한 절수로는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다. 양공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는 과거에 금메달을 땀은 세계 1위였던 인맥이 있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경향하고 시험을 치러 한두 번의 실수만으로도 탈락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계복음화에 쓰일 배려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의 박사가 되고 영적인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237개 나라와 참사랑교회를 살리며, 로마서 16장의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끝까지 시험하신다. 이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국가대표요, 박 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복음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도와 직 분자, 그리고 램프들에게 지난 한 주의 영적 상태와 몇 절이었는지 물어보면 절수가 한없이 내려간다. 기도생활은 몇 절이었는지, 말씀묵상은 몇 절이었는지, 전도는 몇 절이었는지, 세부적으로 물어볼수록 대부분 30점, 40점에 머문다. 과거 대한민국 현장에서 점점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회에서 60점 이하는 낙제인 'F'학점이다. 유지원이나 초등학교는 누구나 진급하지만, 영적인 박사가 되어 세계를 살리려면 이처럼 영적으로 계속 'F'학점을 받아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대회에서 석사, 박사, 교수로 나아가려면 'All A'를 받아야 하듯,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적인 도는 조건들은 조그만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서민은 지금 결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세상의 학벌, 성적, 배경, 혹은 신앙의 연륜 등은 영적 서민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서민이 되면, 학업과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강단말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결국 'A+'를 받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았다.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학업에 진전이 없는 것은 강단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식적으로 보면 설교시간이 가장 좋다고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램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강단메시지의 주제와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끝까지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학업성적도 결코 나쁠 수가 없다. 세상이 가장 어렵고 힘든 영적 집중을 해내는 자가 학업에 뒤처질 리 없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반드시 삶과 성직에서도 승리한다.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바란다.

히로시마에서 관광하기보다 심 선교사님 현장에 가게 되었다. 히로시마 거리에서는 노숙자이자 야쿠자 출신인 니카이도 상과 문단 상을 만났다. 이번은 과거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준 자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살하려 했을 만큼 상처와 증오가 깊었으나, 어찌저찌 히로시마로 오게 되어 집 선교사님들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전히 상처가 커서 자신을 도와준 분에게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인도되었음을 깨닫자 그는 허엿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얘기를 하였다. 이번이 이번 자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처럼 모든 것을 애기한 것이 처음이라고 심 선교사님도 놀라며 얘기하였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앞으로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하였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부르던 다 오시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선교는 15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팀을 짜서 인도받습니다."라고 얘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다. 성도님들께서 모멸적인 선교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에 출국하기 전부터 온전히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하며 세 번의 선교사님을 만나 포럼을 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기도 중에 '이 세 번의

선교사님을 꼭 만나야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사모님게 연락하여 선교현금을 전달하고 싶으니 히로시마. 참사광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예 교회신 선교사님들도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다. 나중 포럼의 내용도 많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은 엇그제 결성된 모임이 아니라 무려 5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팀'이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만년의 과격히 하나니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였음을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종혁 선교사님의 자녀가 아홉 명인데 모두 훌륭하게 잘 자랐다. 아홉 명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현재 도쿄의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막내는 내가 선교사님의 여덟째 자녀를 보았을 때 태어나서, 아홉째를 낳았다는 소식도 듣지 못해 큰꼴이 무척 궁금했다. 막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물어보았더니, 고교시절에 있는 '라살(La Salle)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이 학교는 전문적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명문 고등학교로,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등학교 중에서도 시나 의학 분야만 집중적으로 배움하는 곳에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아홉 명의 자녀를 키워낸 고정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구마모토에서 의미와 관련 학문으로 매우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였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일본신학교를 다녔고, 다시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한국까지 오가며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 막대한 돈과 시간, 그리고 아홉 명이나 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벅하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서론**  
 박종혁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평계요 거짓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경제적인 궁핍, 적박한 선교의 어려움, 가정과 자녀양육의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고백하셨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예수가 되고 완전복음으로 결연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안이나 시소한 것들을 문제 삼으며, 정작 집중해야 할 전도와 제자양육, 복음전파는 놓치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가 낭비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려다도, 정작 주님께 내 삼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교회의 문제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아울러 함께 고린도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쳤던 교회였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곁에 없게 되자, 그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시 복음에 대시 되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지 몰라다, 정작 각자의 불평뿐만, 성도 간의 갈등, 타락의 문제 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하나니의 자녀로서 양장선수 이긴 하지만 과목을 쓸 때마다 7점, 8점, 6점을 맞고 어쩌다 가끔 9점, 10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런 상태로는 복음의 국가대 표가 될 수 없고, 참된 램프를 양육할 제자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진정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행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니 안에서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도 어떤 모든 것을 다 맡길지라도 평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요하고 나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인도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중(마25:26)의 모습일 뿐이다.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오직 300% 다 집중해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니, 이것이 하나니의 뜻입니다! 하나니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중에서 못가나, 내 육신에 좋지 않은 말만 취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씀은 버린다면 그것을 결코 온전한 성령의 인도라고 할 수 없다. 성경에서라도 따지기에 매는 자를 보셨나(눅18:8)고 말씀하셨다. 역사를 보면 다니엘, 요셉,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이야기할때 각 시대마다 참된 남은 자는 아주 소수였다. 여러분은 완전복음과 완전한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시대의 영적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아주 시소한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지킬 때 비로소 24시간 기도가 되는 것이다. 자녀들도, 부부들도, 교회의 문제 등 어려움과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은 큰 축복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좋고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학위 가 석사, 박사도 올라갈수록 풀어야 할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그 모든 완벽한 인도를 믿어야 한다. 어떠한 염려나 문제 속에서도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 것이다. 무조건 예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세상에는 가족 간의 스토르케, 형제나 친구 간의 필레오, 남편 간의 에로스 같은 사랑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조건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 하는 하나니의 사랑, 바로 '아가페'를 의미한다. 나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거든 마시게 해라(롬12:20)고 명한다. 그렇게 선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그도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숲길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아서 하나니에게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에 대해 원수국과 같아서 이웃이지만 쉽게 사랑하기 힘든 존재이다. 히로시마의 시의원과 평화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그 부분을 짚었다. 일본은 전 세계에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일사불란을 맞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평화를 말한다. 그렇기에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원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잘못된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빼앗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들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똥지저들과 권세(정사와 권세)를 상대하는 것'(엡6:12)이라고 했다. 사탄이 바로 그 지도자들과 정사와 권세 위에 역사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시의원의 얼굴이 굳어지며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은 눈빛을 보였다. 다음 번에도 기회가 되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주려 한다. 세상의 훌륭한 엘리트도, 거리의 노숙자도 이 거대한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금 전 장로님께서 어떤 분의 가족이 6월 9일 생일날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도를 부탁하셨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완전히 격멸될 줄 믿는다. 성도님들께서도 그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을 전해 내림굿을 받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가진 우리뿐이다. 우리는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위치에 있다. 결보기에 훌륭한 국내외의 원로님 엘리트들도 다 미려가 불안하여 짐을 치러 다닌다. 그들에게 하나니의 완벽한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해 줄 사람은 복음까지 우리밖에 없다. 결코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비하면 '여기 우리 장로님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실 테니 한번 들으십시오'라고 언제든 말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니께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다. 우리 램프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평소에도 매일, 매순간, 번사에 구원의 길과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준비하여 언제 갑자기 기회가 오더라도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전1:18, 반전3:15).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만 십자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식어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니의 능력이 된다(고전1:20-21).

**1. 고린도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사도 바울의 답변**

1) 편당을 나누어 분쟁하는 문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정작 고린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목사님 탓으로 돌리고,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 당을 짓는 등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성도

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며 파당을 나누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믿음복사였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부복사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이런 각자의 기증에 따라 사람이 아니라 교리를 중심에 두고 갈라져 싸웠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단호히 꾸짖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릇을 가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완전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거침없고 부절의 영에 속게 된다. 박종형 선교사님이 아홉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독특한 머리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수없이 인본주의를 쓰고 갈등하며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식과 기준은 옳다고 보아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세계렌턴드대회나 집회는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 "왜 사역에 발전이 없는가?"라며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깊이 깨달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오직 예수'로 결론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비판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온전한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면 나머지 모든 삶의 부분은 저절로 풀리고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원한다.

2)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지식적 교만의 문제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지식적 교만의 문제가 있었다. 화려한 그리스도라 칭하여 비판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말도 안되는 신비주의 이야기이자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빌3:8)고 고백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나 어떠한 원치못하던 위력을 가진 자도 귀신들려 내뿜고 받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 매일 다두고 싸우는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없다. 온갖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음란과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교육 방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만하신 지식의 최고엘리트 서민들조차 자신의 권력과 표를 얻기 위해 은밀하게 점을 지러 다닌다. 그 때 배우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계약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만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공개 믿기 바란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 세상의 학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과학, 철학, 수학, 정치, 그리고 정치인과 교수도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비판한, 그 모든 세상지식은 배설물과 쓰레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이다(빌3:8). 여러분은 이 고백을 그저 머리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되기를 축원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어떤 강단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근본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축복과 성령의 세례만 인도 역시 결코 받을 수 없다. 마귀가 가장 교묘하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강단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는 말씀을 다 아는 것 같고, 마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강단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당을 지어 대항했던 사람들도 결코 영성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까지 결단할 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화평과 친밀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이며 아직 완전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복음,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300%의 영적 전문성을 갖추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을 회복해야 한다.

3)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성도들이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교회가 세상법정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심하게 꾸짖었다. 바울은 "너희 안에 화평하게 하고 중재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고전6:5)"고 탄식했다. 과거 우리 교회는 비논리 법정이 생겨 법정이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부추워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했는데 더 이상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싸움과 분쟁의 영은 계속해서 다름을 일으키며 파괴하려 한다. 그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화평케 이루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지 싫다면 결코 범죄싸움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자라린 기꺼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양보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신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린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량 한 자존심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 차라리 속는 일에도 쉽게 다투고 끔찍한 변조까지 저지른다.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이 없으면 이처럼 혼돈과 후안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다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와 말씀묵상으로 우리 영혼을 은혜로 채워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4) 잘못된 음행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한 문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타락을 상징할 만큼 그곳의 문화는 음란했다. 교회 안에는 심지어 계모(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끔찍한 음행이 일어났다(고전5:1). 또한 신전의 장로들과 어울리는 자들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일 몸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니 타락과 중독에 내어주지 말고, 예배와 봉사, 선한 일에 사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5) 지나친 금욕주의의 문제 반대로 음행에 대한 반발로 결혼조차 금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문제였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말했다. 결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된다(고전 10:31).

6)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에게 제사지낸 음식을 먹는 문제로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성령충만하고 성령인도를 받으면 내가 나의 감정, 인성, 칭찬,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또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의 자유와 권리보다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방인이 믿난 신주한 축사신 부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분들은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의 깊은 신뢰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아름답게 발하고 계셨다. 과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본에 3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언어가 지금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례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서일본지역 목회자모임의 임원인 한 복음적인 일본인 목사님께서 노회강사로 초청당하고 참사랑교회 원로목사님들이 초청을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왔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 생각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앞서서 선분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불평불만과 불신앙의 입을 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아름다운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7) 은사의 무질서 문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등 영적 은사에 대한 질서문제를 다룬다. 당시 성도들

은 서로 자신이 받은 방언이나 예언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를 두고 다투었다. "나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니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나는 예언을 하니 더 뛰어나다"며 교만하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도리어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2. 원전복음과 원전사랑에 대한 성경구절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현장에서 굳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었다.

1) 원신도의 언약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단순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연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부관계든 가정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성령의 과정이다. 그럴 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겠지"하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마26:39)"라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2) 십자가의 도와 전도의 미려한 것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여 내 뜻과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남은 틀렸다고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선언한다. 어리석음, 약함, 폭력성,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인간의 내면을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척 미려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연단을 거쳐 결국 "오직 예수"라는 진실한 신앙고백에 이르게 하는 전도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전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길 바란다.

3) 섬기는 자세와 명품신앙 그리스도인은 항상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타인의 잘못을 풀어주고 나 자신을 기꺼이 낮추며 수용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광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장로교 신앙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루터 칼빈의 가르침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오직 은혜'이다. 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누리는 영혼의 진짜 영적인 '명품'이다. 진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먼저 혼란을 통해 복음의 명품이 되고, 또 다른 명품제자를 길러내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4) 다양한 사람에게 맞추는 영적인 힘 자체로도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수준과 성행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맞추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고백을 전해준다. 타인의 연합함을 탓하거나 나의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대신, 믿음이 약한 자의 눈높이에 기꺼이 맞추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갈아서가 아니라 오직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넉넉한 영적 힘이다. 반대로 복음이 없는 열심은 '집중'이 아니라 중독인 '집착'에 불과하다. 집착에 빠진 열심은 참된 평안이 없으며 결국 한계에 부딪혀 쉽게 무너지고 만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맹목적인 열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5) 영적 서밋을 향한 절제와 달음질 그리스도인은 영적 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라고 말씀한다. 당시 고린도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 비유한 것으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혹독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평경도 전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변명도 불과하다. 진정으로 300%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제자를 양육할까?", "우리 현장과 기업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까?"를 치열하게 묻고 실천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든 돈을 벌기 위해 반년없이 고군분투하는데, 허물며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적 달음질을 쉬어서야 되겠는가.

6) 그 종의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귀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장에서 이 원전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참된 제자로 세우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임교실)**

|            | 시간 & 장소                        | 담당자    |         | 시간 & 장소                           | 담당자    |
|------------|--------------------------------|--------|---------|-----------------------------------|--------|
| 여형캠프       | 모집 시                           | 정창호 집사 | 서예교실    | 한달 토 10:00, 2층 식당                 | 모집 중   |
| 트리카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 정수환 집사 | 스키&스노보드 | 동계                                | 박찬열 집사 |
| 탁구교실       | 매주 토 11:50, 2층                 | 최혜숙 권사 | 수목캘리그라피 | 1, 3주 토 19:00<br>2층 식당            | 김순호 장로 |
| 기타클래스      | 매주 토 14, 17, 19시<br>4층 당회실     | 이명 장로  | 축구&풋살   | 한달 토 오후                           | 김승훈 집사 |
| 트리니티찬양교실   | 1, 3주 수 14:30<br>3층 제2렘넌트실     | 임예진 권사 | 취미그룹교실  | 1, 3주 토 17:30<br>2층 식당            | 김순호 장로 |
| 복음영어클래스    | 매주 토 15:30, 주일 19시<br>1층 어린이부실 | 주은경 권사 | 드림클래스   | 매주 토 18, 19, 20시<br>5층 분당, 1층 비전홀 | 김승훈 집사 |
|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br>4층 찬양대실           | 이석 집사  |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        |

## 교회를 섬기는 아들

|      |  |         |                   |       |                   |
|------|--|---------|-------------------|-------|-------------------|
| 담임목사 | 정윤돈 010-8033-5678  | 부목사     | 심한결 010-8206-2024 | 협동전도사 | 전인숙 010-8881-5222 |
| 원로목사 | 최정용 010-5260-5511  |         | 이현규 010-9736-3556 | 사무간사  | 박난순 010-9930-5558 |
| 부목사  | 박범서 010-6335-3719  | 목사(전도팀) | 김양순 010-8328-0132 |       |                   |
| 전도인  | 최진희 이미지 김급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         |                   |       |                   |
| 장로   |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종화 김현<br>여준석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김급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br>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장공이 (해외) 최봉식<br>(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운 |         |                   |       |                   |
| 찬양대  |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         |                   |       |                   |

## 예배 및 모임 안내

| 예배      |             |                        | 교회학교        |             |           |       |            |        |
|---------|-------------|------------------------|-------------|-------------|-----------|-------|------------|--------|
| 구분      | 시간          | 장소                     | 구분          | 시간          | 장소        |       |            |        |
| 주일예배    | 1부 오전 8:30  | 5층, 6층<br>참사랑홀         | 태영아부        | 주일 오후 2:00  | 3층 제1랩넌트실 |       |            |        |
|         | 2부 오전 11:00 |                        | 유치부         | 주일 오전 11:00 | 3층 제2랩넌트실 |       |            |        |
|         | 오후 2:00     | 1층, 3층, 5층<br>(부서별 예배) |             |             |           | 어린이부  | 주일 오후 2:00 | 1층 비전홀 |
|         | 오후 3:30     |                        |             |             |           |       |            |        |
| 수요기도회   | 수 오전 10:30  | 1층 비전홀                 | 중고등부        | 주일 오후 2:00  | 5층 참사랑홀   |       |            |        |
| 금요심야기도회 | 수 오후 7:30   |                        |             |             |           |       |            |        |
|         | 금 오후 8:00   |                        | 대학청년부       | 주일 오후 3:30  | 5층 참사랑홀   |       |            |        |
| 새벽기도회   | 월~토 오전 5:30 | 영상                     |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             |           |       |            |        |
| 자체훈련    |             |                        |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             |           |       |            |        |
| 구분      | 시간          | 장소                     | 구분          | 시간          | 장소        |       |            |        |
| 새가족훈련   | 주일 오전 10:20 | 4층 당회실                 | 산업선교        | 토 오전 9:00   | 1층 비전홀    |       |            |        |
| 복음소식    | 주일 오후 12:30 | 3층 주간보호센터              | 전도학         | 토 오전 9:40   |           |       |            |        |
| 태영아공동육아 | 수 오전 11:30  | 3층 제1랩넌트실              | 핵심요원훈련      | 토 오전 10:30  |           |       |            |        |
| 어린이사명자  | 주일 오후 1:00  | 3층 제2랩넌트실              | 중직자대학원      | 주일 오후 5:00  |           |       |            |        |
| 중고기도회   | 주일 오후 1:40  | 5층 참사랑홀                | 초등전도신학원     | 토 오후 2:00   |           |       |            |        |
| 집중전도신학원 | 수시          | 참사랑교회                  | 청소년전도신학원    | 토 오후 2:00   |           | 참사랑교회 |            |        |

## 국내외선교지

###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창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 군파송자

[육군] 송영민 나중훈 이주형

###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 교회 역사

###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회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리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 교회 소개

###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넳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